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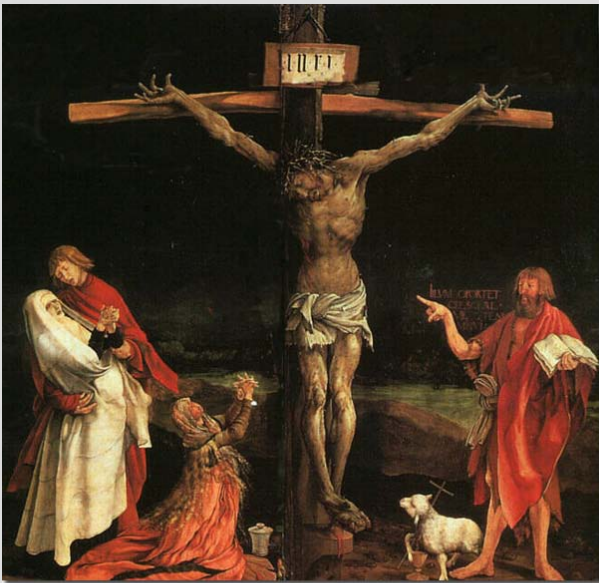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회복운동의 신학적 당위성

발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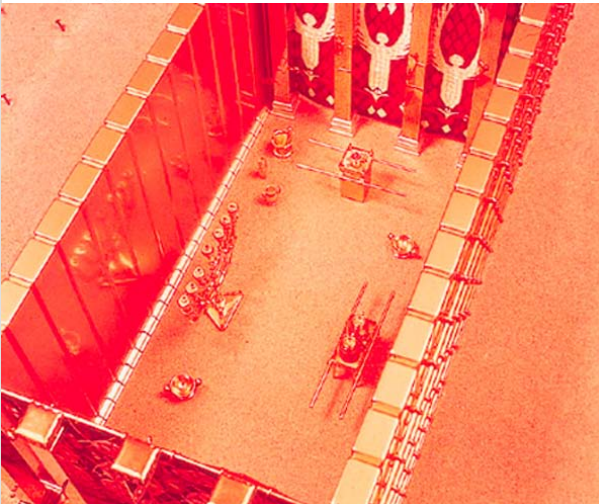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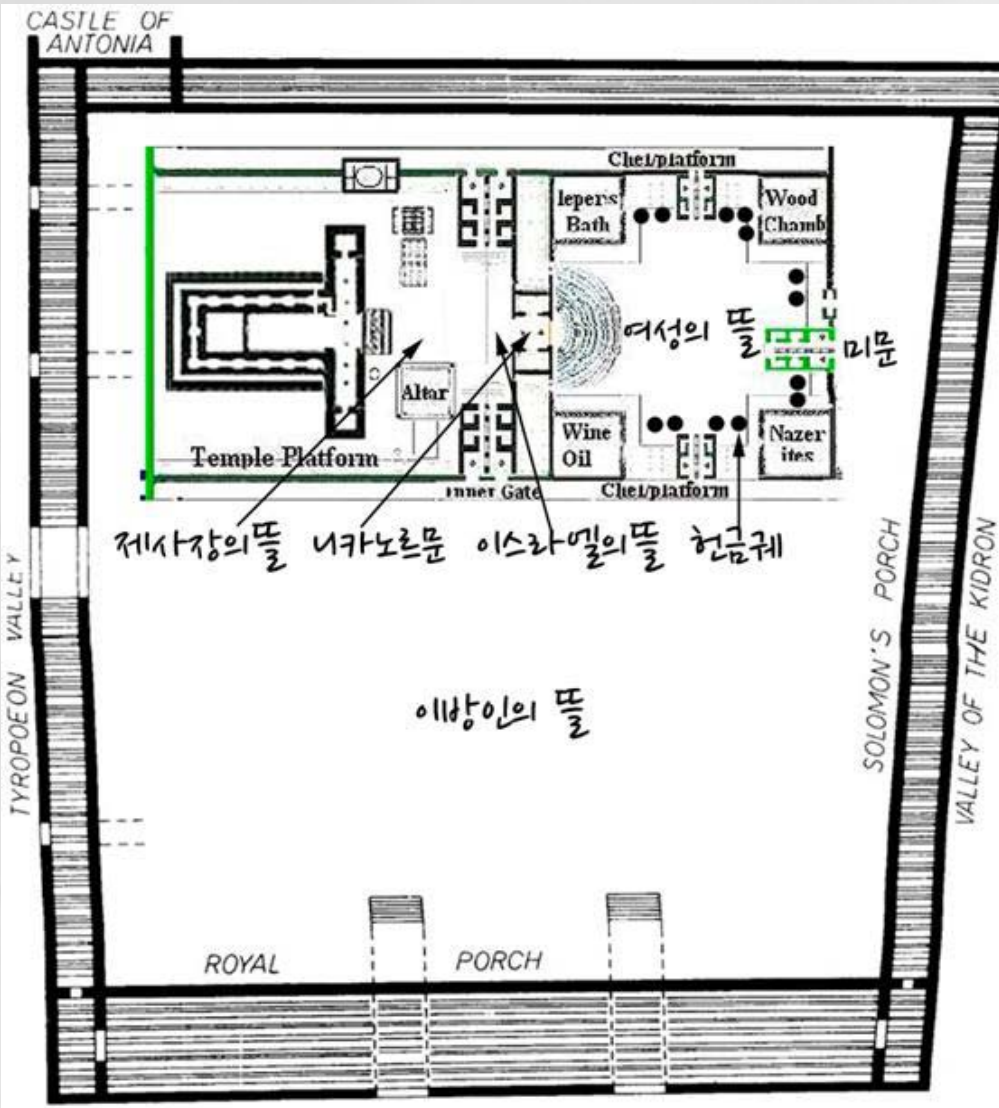
유대교에서는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이전하임 제단화: 십자가 처형병분(1515년, 마티아스 그뤼네발트) 우측에 침례 요한이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좌측에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절은 제자 요한이 성모 마리아의 허리를 떠받쳐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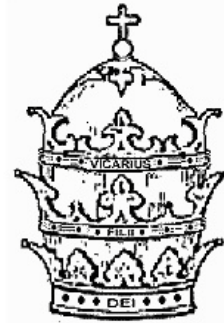
성막의 성소 내부. 채루빔이 수동아진 휘장 뒷쪽에 지성소이다. 성소 출입구 왼쪽 편에 금등대, 오른쪽 편에 금판으로 싯 진설병상, 휘장 앞쪽에 금판으로 싯 분향단과 기타 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다(히 4:16, 10:20).



The Pope's triple crown, with VICARIUS FILII DEI, the Roman numerals adding up to 666



교황 그레고리 16세(Gregory XVI, 1831~1846)의 삼중관. 상층에는 "VICARIUS", 중층에는 "FILII", 하층에는 "DEI"라고 새겨 "하나님의 대리자"를 자처했다.



1871년 벨지움에 의해 교황 비오 9세에게 바쳐진 삼중관. 라틴어로 상층에 CHRISTI VICARIO(그리스도의 대리자 . Christ's Vicar), 중층에 IN TERRA(땅 위에 . On Earth), 하층에 REGVM(왕들 . Kings)이라고 새겼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주장하는 교황과 사도직 계승을 주장하는 사제들로 인해서, 곧 가톨릭교회의 유대교화로 인해서, 개인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시 막혀 버렸다.

16세기 종교개혁가들



마르틴 루터 (1483~1546), 울리히 츠빙글리(1484-1531), 장 칼뱅(1509~1564)

1. 종교개혁운동의 공과(功過)

- 교황과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개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만인사제”의 의미)
- 라틴어 성경과 라틴어 미사만 허용되던 시대에 모국어로 성경을 읽거나 특히 예배 중에 모국어로 읽어 주는 성경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 하루 세 번씩 기도회로 성전제사를 대신하던 유대 교기도회에 주의 만찬을 첨가하여 성전예배의 의미를 살린 것이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예배였다.
- 주의 만찬에 신앙의 신비(Mysterium fidei)를 추가하여 그리스도교 예배를 제사로, 집례자를 사제(제사장)로, 주의 만찬상을 제단으로, 떡과 포도주를 제물로, 떡과 포도주를 바치는 행위를 봉헌으로 유대교화시킨 것이 가톨릭교회의 미사이다.
- 츠빙글리가 주의 만찬에서 신비(미신)만 뺀 것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예배내용 그 자체였던 주의 만찬을 연 2-4회로 줄임으로써 그리스도교 예배를 기도회로 유대교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개신교 역시 국가종교였기 때문이다.

시의회에 체포되어 처형되는 재세례파들 (츠빙글리와 칼뱅은 이들을 용납치 않았다)



Maria van Monjou. 1552.



Maria van Beckum, en Urfel, haers Broeders Wijf. 1544.

츠빙글리, 칼뱅, 루터는 국가종교의 틀에 갇혀있었고,
국가(시의회)는 주류 이외의 신앙운동들을 사형으로 다스렸다.
유럽에서는 가톨릭뿐 아니라, 개신교에도 신앙의 자유가 없었다.
박해 사례: 재침례파, 윈스터공동체, 청교도



츠빙글리와 칼뱅은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정교분리를 주장한 재침례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시의회는 이들을 익사(침례를 조롱할 목적), 화형 등으로 처형하였다. 그러나 평화주의, 무저항주의자들이었던 재침례인들은 그 어떤 저항이나 반항도 하지 않았다.

2. 그리스도교 분열과 교단세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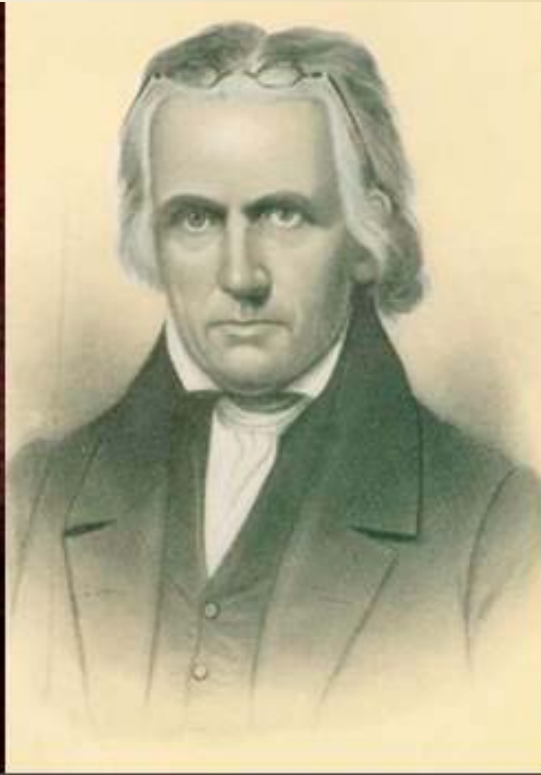
- 313년 박해시대가 끝나자 삼위일체와 단일신론으로 분열. 325년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니케아신조'를 시작으로 각종 신조들 양산.
- 테오도시우스,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가 생존했던 392년 그리스도교가 제국종교가 되면서 봉헌(제사)신학과 성체신학이 급격히 발전.
- 지역교회들의 목양자와 감독들이었던 장로들이 사제로 둔갑되어 계급화 됨(부제=집사, 사제=장로,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혹은 보제, 사제, 주교, 대주교, 총대주교).
- 4세기 이후 금욕과 고행을 통한 개인경건과 신비주의 및 수도원운동으로 이어지는 암흑시대란 터널을 통과.

-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들은 일치보다는 진리와 순수성에 경도되어 교파들을 양산.
- 교파별로 신조(교리)들을 쏟아내면서 자기 울타리를 견고히 함.
- 17세기 이후 신비주의운동과 경건주의운동이 나타남.
- 유럽의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신대륙으로 진출하여 교파교회들을 이식.
- 19세기에 미국산 교파들이 다수 탄생.
- 20세기에 이르러 합리주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교단들에서 성경관을 중심으로 근본주의(축자영감설), 복음주의(개념영감설), 진보주의(신앙고백설)로 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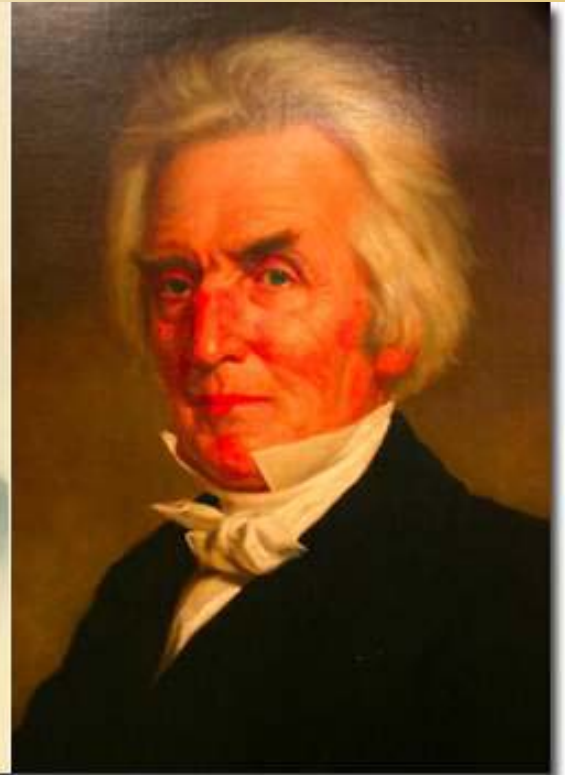
3. 18-19세기 개혁가들의 환원운동



Barton W. Stone
1772-1844



Thomas Campbell
1763-1854



Alexander Campbell
1788-1866

Ad Fontes



To the Sources! 근원으로 돌아가자! - 르네상스
To the New Testament Order of Things!
신약성경의 질서으로 돌아가자! - 알렉산더 캠벨

초기 환원운동가들

- 침례교 목회자
엘리아스 스미스(Elias Smith)와 아브너 존스(Abner Jones)
- 감리교 목회자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ey)와 라이스 해가드(Rice Haggard),
- 장로교 목회자
발톤 스톤(Barton W. Stone)과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
- 장로교 출신 침례교 목회자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 1813-30년 사이에 침례교에 소속함)과 월터 스코트(Walter Scott, 1827-30년 사이에 침례교에 소속함)

○ 환원운동의 두 가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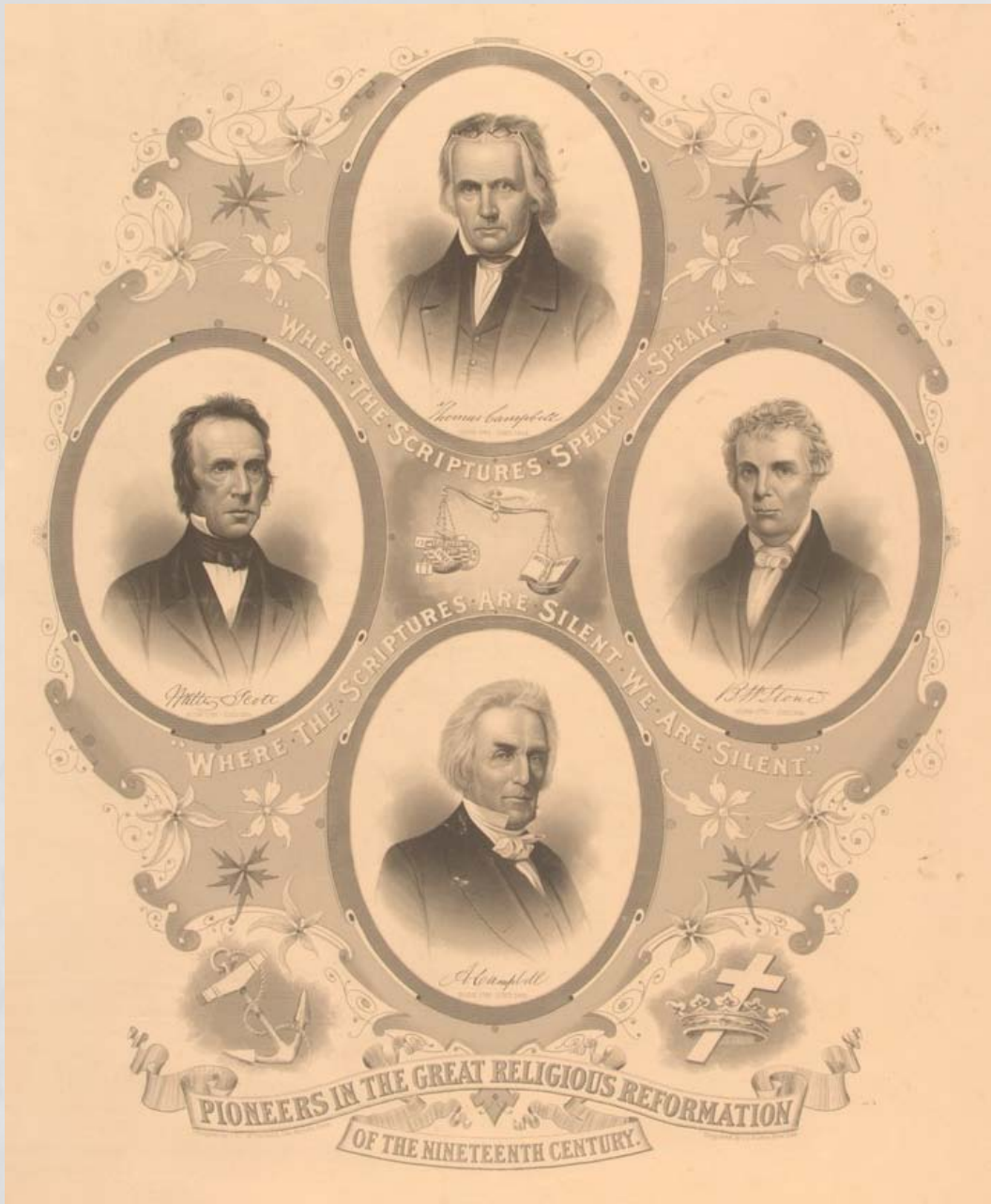
1. 일치(그리스도교 연합)
2. 환원(신약성경 그리스도교의 본래성 회복)

○ 환원운동의 두 가지 운동

1. 그리스도인 운동(그리스도인의 교회들, 그리스도의 교회들)
2.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신앙과 실천) 회복운동

○ 환원운동의 두 가지 방법

1.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침묵.
2. 본질에 일치, 비본질에 자유, 매사에 사랑



○ 환원운동가들의 두 가지 확신

1.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미완으로 끝난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완성시키시려고 환원운동을 전령(Christian Messenger)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2. 그들은 이 확신 속에서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를 자임하면서 그리스도교 일치운동과 신약성경 그리스도교(사도전통) 회복운동(Restoration Movement of the New Testament Ancient Order of Things)을 펼쳤다.

THE

CHRISTIAN MESSENGER

AND FAMILY MAGAZINE;

DEVOTED TO THE

DISSEMINATION OF PRIMITIVE CHRISTIANITY.

ENLARGED SERIES:

VOL.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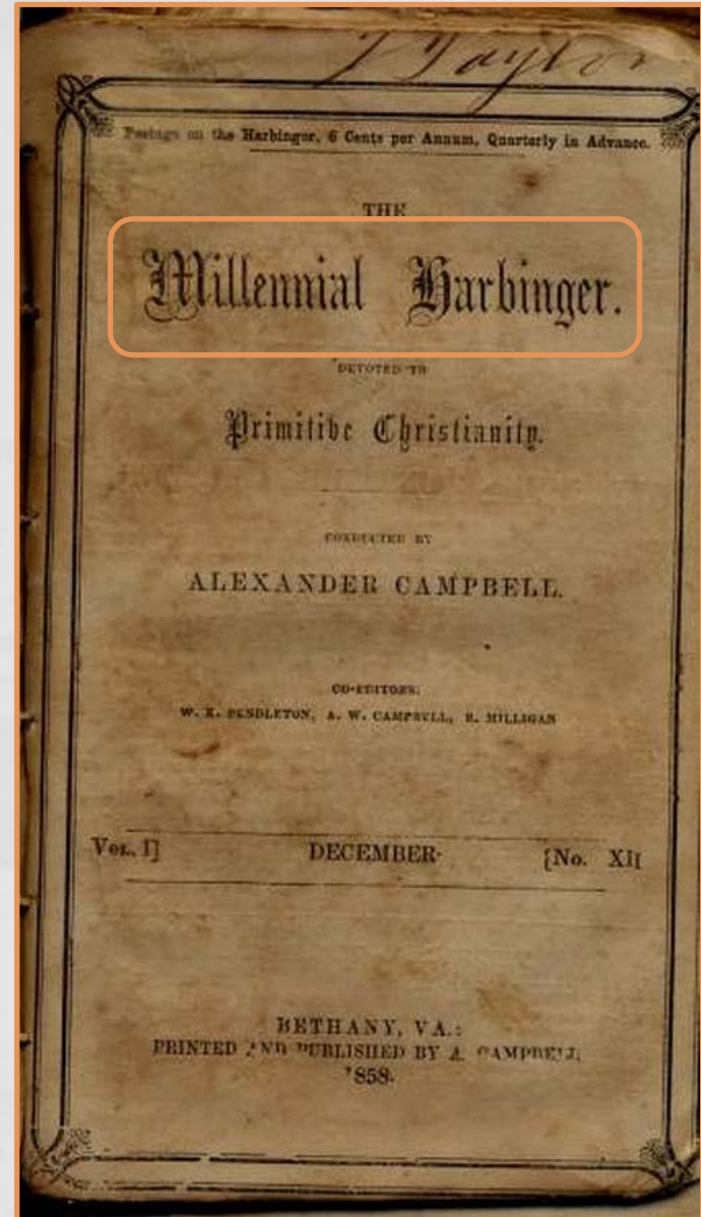


LONDON:

PUBLISHED BY SIMPKIN MARSHALL AND CO.,
STATIONERS' HALL COURT;

AND MAY BE HAD OF THE BOOKSELLERS IN ANY PART OF ENGLAND,
IRELAND, SCOTLAND, AND WALES.

1846.



○ 환원운동가들의 두 가지 핵심 공헌

1. 죄 사함을 위한 신자의 침수세례(Christian Baptism) 회복
2. 간략하고 단순한 매주 주의 만찬 예배 회복

■ 극단적 반대 사례 (최덕성 교수)

- 할례와 세례는 둘 다 언약공동체 예식이다.
- 유아세례는 지극히 성경적이다.
- 헬라어 *baptizo* 또는 *baptisma* 는 우슬초로 피를 적셔 뿌리거나, 염색하거나, 발목 깊이의 물에 들어가는 행위로서 ‘침례’를 의미하지 않는다.
- 그러나 바울은 침례(홍해도하에 비교)를 할례에 비교한 적이 없으며, 초기 그리스도교 교부들은 모두 세 차례의 침수(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를 증언한다.

4. 발표의 목적과 방법

■ 목적

- 종교개혁 이후 심화되고 있는 그리스도교 분열의 근원적 문제가 성경해석의 원칙들이 통일되지 못한 데에 있다는 전제하에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회복운동’이 신학적으로 해석학적으로 옳았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 방법

-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우위권 문제에 대해서 유대교의 입장, 그리스도교의 입장, 환원운동가들의 입장을 간략히 살펴보고, 신약성경 저자들의 구약성경 해석방법을 통해서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회복운동’의 신학적 당위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 **성경해석의 원칙이 통일되지 못하게 하는 원
인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첫째, 성경만을 믿음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을 것인가, 성경뿐 아니라 삶의 정황과 인간의 경험까지도 포함시킬 것인가?
- 둘째, 신구약 성경전체를 규범으로 삼을 것인가, 신약 성경만 규범으로 삼을 것인가?
- 셋째,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사항들을 자유로 볼 것인가, 금지로 볼 것인가?
- 넷째, 특정 사항을 본질로 볼 것인가, 비본질로 볼 것인가?
- 다섯째, 특정 성구나 어휘의 뜻을 문자적으로 할 것인가, 영적으로 할 것인가?
- 여섯째, 신학방법론, 성경비평방법론 등의 차이.

A.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우위권 문제

1. 유대교의 입장

- 구약성경은 유대민족의 출범, 발전, 쇠퇴, 멸망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해하며, 준수여부가 흥망성쇠를 결정짓는다고 믿기에 문자적으로 지킨다.
- 유대교인들은 신약성경을 허구의 책, 예수님을 거짓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한다.

● 유대교의 진정한 경전은 토라(모세오경)와 그 속에 담긴 613개의 계명들이다. 역사서들과 예언서들은 민족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토라를 근거로 자기 민족의 잘잘못을 성찰한 글들이고, 성문서들은 예배와 신앙에 관련된 글들이다. 이 토라와 다른 글들의 비중은 그들이 회당기도회 때 읽는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눅 24:44)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월요일, 목요일 아침기도회 때 읽었던 성구와 매일 기도회 때와 성전(이스라엘의 뜰)에 오를 때 불렀던 시편을 말한다.

● “율법과 선지자”에서 “율법”은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54개(Parshiyot)로 나눠서 일년에 한 차례씩 완독하는 ‘토라’(Torah)를 말한다.

- “선지자의 글”은 토라와 함께 읽히는 ‘하프타라’(Haftarah)로써 역대기서가 제외된 역사서들과 예언서들이 포함되는데, 해당 주(Parshah)에 읽히는 토라와 관련된 몇 개의 선별된 구절들만 읽힌다. 권위가 토라만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시편”은 기도서 <시두르>(Siddur)에 실린 매일 부르는 찬양들을 말한다. 아침기도회 때 ‘페수케이 드지므라’(Pesukei d'Zimra, 시편들과 시편에서 선별된 ‘노래 구절들’)와 ‘아쉬레이’(Ashrei, 시편 145편)를, 안식일과 축일 아침기도회 직후 바치는 추가 의식인 ‘무사프’(Musaf) 끝에 시편들이 낭송된다. 또 안식일 기도회 때 토라 두루마리를 법궤에서 꺼내 회중석으로 가져갈 때(34편, 99편)와 낭독 후 법궤로 원 위치될 때(29편) 시편들이 낭송된다. 성전멸망 전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120-134편)도 불렀다.

Table of Weekly Parshiyot

Below is a table of the regular weekly scriptural readings. Haftarah in parentheses indicate [Sephardic](#) ritual where it differs from [Ashkenazic](#). There are other variations on the readings, but these are the most commonly used ones. If you want to know the reading for this week, check the [Current Calendar](#).

There are additional special readings for certain holidays and other special days, listed in a separate table [below](#).

Parshah	Torah	Haftarah
Bereishit	Genesis 1:1-6:8	Isaiah 42:5-43:11 (Isaiah 42:5-42:21)
Noach	Genesis 6:9-11:32	Isaiah 54:1-55:5 (Isaiah 54:1-10)
Lekh Lekha	Genesis 12:1-17:27	Isaiah 40:27-41:16
Vayeira	Genesis 18:1-22:24	II Kings 4:1-4:37 (II Kings 4:1-4:23)
Chayei Sarah	Genesis 23:1-25:18	I Kings 1:1-1:31
Toldot	Genesis 25:19-28:9	Malachi 1:1-2:7
Vayitzei	Genesis 28:10-32:3	Hosea 12:13-14:10 (Hosea 11:7-12:12)
Vayishlach	Genesis 32:4-36:43	Hosea 11:7-12:12 (Obadiah 1:1-1:21)
Vayyeshev	Genesis 37:1-40:23	Amos 2:6-3:8
Miqetz	Genesis 41:1-44:17	I Kings 3:15-4:1
Vayigash	Genesis 44:18-47:27	Ezekiel 37:15-37:28
Vayechi	Genesis 47:28-50:26	I Kings 2:1-12
Shemot	Exodus 1:1-6:1	Isaiah 27:6-28:13; 29:22-29:23 (Jeremiah 1:1-2:3)
Va'eira	Exodus 6:2-9:35	Ezekiel 28:25-29:21
Bo	Exodus 10:1-13:16	Jeremiah 46:13-46:28
Beshalach (Shabbat Shirah)	Exodus 13:17-17:16	Judges 4:4-5:31 (Judges 5:1-5:31)

- 유대교인들에게는 오직 두 개의 ‘하티크바’ (Ha-Tikvah, 희망)만 있다.

-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예배와 종교법정 체계를 회복시킬 ‘모쉬아크’ (Moshiach)가 나타나는 것 (오늘날 유대교인은 ‘메시아’란 말을 쓰지 않음).
- 모쉬아크가 가져올 ‘올람 하바’ (Olam Ha-Ba) 곧 ‘다가올 세계’ (World to Come)가 도래하는 것.
- 여기서 모쉬아크는 문자적으로 제2모세이고, 올람 하바는 문자적으로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이며, 하티크바는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애국가이다.

2. 그리스도교의 입장

1) 구약성경이 신약성경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

- 아놀드 A. 판 룰러(Arnold A. von Ruler)는 “구약은 하나님의 본래적이요 본질적이요 정경적인(규범적인) 말씀이며, 신약은 구약의 해석학적 부록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룰러는 “구약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합법화로 기독교회에 필요하다... 구약이 기독교회에 필요한 것은 복음의 해석을 위해서이다”고 하였다.
- 코넬리스 H. 미스코테(Kornelis H. Miskotte)는 “구약을 ‘그 이름’에 대한 독자적인 증거로, 신약을 구약의 기독교적 후속물로, 탈무드를 구약의 유대교적 후속물로 본다”고 하였다.
- 이 밖에도 제임스 바아(James Barr)와 윌러 로빈슨(H. Wheeler Robinson)이 구약의 신학적 역사적 우위성을 주장하였다(D. L. Baker, *Two Testaments on Bible*, pp. 108-09).

■ 구약성경이 신약성경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를 꾀한 대표적 사례들

- 가톨릭교회의 제사(봉헌)와 사제(제사장) 개념.
- 제칠 안식일(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준수를 고집하는 안식교회(재림론자 교회).
- 단일신론을 고집하며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여호와증인.
- 일부다처제를 주장하는 몰몬교.
- 구약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고집하는 세대주의(시대구분론).
- ‘예슈아’를 그리스도로 믿으나 세대주의 성경해석법을 따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Messianic Jews).
- 피 뿌림과 할례를 모방한 약식세례와 유아세례.
- 반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인 에비온파(Ebionites).

-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유대인들에 국한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거나 강조한다. 이런 경우 대개는 공리주의나 실용주의적 유용성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를 꾀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고후 11:4, 갈 1:6-9),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갈 1:7),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빌 3:18), “저주를 받을” 자들이었다(갈 1:8-9).

2) 신약성경이 구약성경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

-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구약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The Significance of the Old Testament for the Christian Faith>.
- 프리드리히 바움게르텔(Friedrich Baumgärtel)-구약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약속: 복음적인 구약 이해에 답하여>.

- 이 밖에도 임마누엘 허쉬(Emanuel Hirsch)와 프란츠 헷세(Franz Hesse)가 신약의 신학적 역사적 우위성을 주장하였다 <D. L. Baker, *Two Testaments on Bible*, pp. 141-81>.
- **총신대학교의 정훈택 교수** - “신약성경을 ...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어떤 책도 신약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약성경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경전이라고 해야 한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과 함께 읽힐 때에만 기독교 경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읽고 사용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의 사도들이 확신한 대로 예수님과 그의 관련성 속에서 읽는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구약성경을 기독교적으로 읽고 사용하는 것이 구약성경의 진정한 의미라고 믿는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포함하고 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구약성경을 신약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읽는다면, 그는 구약성경을 오해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신약개론>.

3. 환원운동가들의 입장

환원운동의 두 축이 일치운동과 환원운동이다. 그 가운데 한 축인 환원운동이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회복운동' (Restoration Movement of the New Testament Christianity)일만큼 환원운동가들은 처음부터 신약성경의 우위성을 강조하여왔다.

1)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

-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성경 그리스도교의 사도들의 권위에 의해서 분명히 명령된 것 즉 명백한 용어나 승인된 전례(前例)”가 아닌 것들로만 결코 “믿음의 조항”이나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제3명제).
- 둘째, 신구약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완전하고 통전적인 계시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지만, “직접적이고 적절하게 그들의 즉각적인 목적에 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약성경이 신약성경교회의 예배와 징계와 치리를 정한 완전한 헌법이고, 교회 구성원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한 완전한 규율인 것은, 마치 구약성경이 구약성경교회의 예배와 징계와 치리를 정한 것과 같으며, 구약성도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한 것과 같다”(제4명제).

- 셋째, “신약성경이외에 어떠한 것도 믿음 혹은 교회예배에 유입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제5명제).
- 넷째, “신학적으로 추론된 어떠한 해석이나 진리도 교회의 신앙고백의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제6명제).

2) 알렉산더 캠벨

-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율법에 관한 설교’)
- ‘옛 질서들의 회복’ (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 이란 일련의 기사들을 통해서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회복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침. <그리스도인 침례>

3) P. H. 웰시머의 <신약성경교회에 관한 사실들>

- “비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것과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신약성경에 쓰여 있다.... 구약은 유대인을, 신약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이다.... 구약의 계명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한 이유는 신약성경에서 다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성경이 필요한 것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알렉산더 캠벨은

설교가와 신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성경학자로서, 교회 개혁가로서, 인습타파자로서, 유명한 무신론 사회개혁가 로버트 오웬과 <그리스도교 증거들에 관한 토론>, 가톨릭교회 주교 존 퍼셀과 <천주교에 관한 토론>, 장로교 목사 존 워커, 윌리엄 맥칼라, 나단 라이스와 <침례에 관한 토론>을 펼친 토론가로서, 대중연설가로서, 조직가로서, 사회개혁가로서, 교육가로서, 정치가로서, 편집자와 출판가로서 명성을 떨쳤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출범된 해인 1830년 1월부터 새로 발행한 <천년왕국 선구자>(The Millennial Harbinger)지를 통해서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회복운동을 정상에 올려놓음으로써 19세기말 20세기 초에는 미국 인구 증가율의 2배가 넘는 성장률을 갖게 하는데 공헌하였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우위권 문제의 결론

-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 원칙, 곧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했던 방식대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저주의 대상인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
-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구약성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 말한 것은 구약성경을 신약성경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할 것을 의미한 것이다. 이런 해석방법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해석방법이었고, 신약성경 저자들의 해석방법이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B. 신약성경 저자들의 구약성경 해석방법

1. 신약성경에는 해석이 있는가?

-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약성경 저자들의 구약성경과 사도전승의 해석에서 비롯되었다.
-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의 해석으로 가득하다.
-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대제사장으로 설명해야 할 경우 구약성경 예언의 해석은 불가피하다. 복음서들이나 히브리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 성경해석에 관한 언급들
 - 구약성경을 해석한 사례들: 눅 24:27, 32; 행 17:3, 18:26.
 - 해석(설명)의 어려움에 대한 언급: 히 5:11; 벧후 3:16.
 -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권면: 벧후 1:20.
 - 잘못 해석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언급: 벧후 3:16.

2. 신약성경 저자들은 무엇을 해석하였는가?

- 성경의 저자들은 전거의 해석자들이었다.

- 구약성경의 역사가들과 예언자들은 토라(계약전승)을 민족의 희망성쇠에 관한 역사성찰의 전거(典據)로 삼았다.
-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관한 구전전승과 구약성경을 전거로 삼았다.
- 바울은 사도전승(안디옥교회의 전통 포함)과 구약성경을 전거로 삼았다.
- 히브리서와 계시록의 저자는 구약성경을 전거로 삼았다.
- [누가복음 1장 1-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개정〉
- [고전 11: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개정〉

-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들을 해석할 때,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할 때, 전승과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오류나 실수가 없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영감으로 도우셨다(딤후 3:16).**
- **성경은 신앙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길지는 신앙공동체의 정황에 따라 결정되었다.**
- **성경은 신앙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그 속에 담긴 자료들은 지극히 선별적일 수밖에 없었다.**
 - **[요한복음 20장 30-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개정〉**
 -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개정〉**

3. 신약성경 저자들은 왜 해석하였는가?

- 성경은 신앙인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는 글이다. 구약성경이 신실한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문자적으로 지상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면, 신약성경은 신실한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늘 가나안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요한은 복음서 20장 30-31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다.
- 히브리서 저자는 6장 12절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하였고, 그리스도교에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동족의 박해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후퇴하는 상황에서 구약성경을 풀어 “믿음과 인내”(6:12; 10:36)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 계시록의 저자는 로마제국의 황제숭배 강요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신앙인들에게 “믿음과 인내”(계 13:10; 14:12)를 촉구할 목적으로 구약성경을 충실하게 해석하였다.

4. 신약성경 저자들은 어떻게 해석하였는가?

1) 구조주의 모형적 해석

- 모형적 해석은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을 “모형”(ὑπόδειγμα, 히 8:5; 10:1), “그림자”(σκιά, 히 8:5; 10:1), “비유”(παραβολή, 히 9:9), “표”(ἀντίτυπος, 히 9:23, 벰전 3:21) 등의 어휘를 사용할 정도로 신약성경 저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었고, 구조주의적(Structural)이었다.
- 신약성경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상반된 대립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신약성경은 신념체계이자 하나님의 뜻의 실체인 그리스도교 복음을 독자들인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또 유대교인들의 패러다임(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유대의 정치종교지도자들과 그들의 613개의 계명들의 해석과 장로들의 전통(Gezeirah: 율타리 율법)을 건강한 상태인 그리스도교 복음에 대립되는 병든 상태로 설명한다. 어둠 속에서 빛이 밝게 빛나듯이 그리스도교 복음의 건강한 상태가 유대교의 병든 상태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만든다. 신약성경 저자들은 그리스도교 복음이 의미하는 것과 의미하지 않는 것을 함께 진술함으로써 그리스도교 복음의 의미를 명확히 밝힌다.

- 마태복음은, 마치 모세오경(토라)이 이스라엘이 지상 가나안 땅에서 언제 어떻게 왜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듯이, 새천년시대(Olam Ha-Ba)로써의 교회천국이 언제 어떻게 왜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었는가를 모세오경의 모형을 좇아서 설명하고 있다.
-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교의 모세오경으로 편집되었다. 모세오경이 이스라엘의 새천년시대인 가나안시대 직전까지의 역사이듯이, 마태복음은 새천년시대인 교회시대 직전까지의 역사이다.
-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출애굽사건과 가나안땅 정복에 잇대어 기술되었다. 누가복음은 평화군의 대장이신 그리스도님과 그의 군사들이 하늘 가나안땅에로의 오름(aliyah)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예수님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늘 예루살렘에로의 오름에 대한 실체적 모델로써 그 모형을 히브리인들의 출애굽사건에 두고 있다.
- 사도행전은 새 언약 백성의 새 출애굽기이며, 새 여호수아서 이야기이다. 여호수아와 히브리인들의 가나안땅 정복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나라도 땅의 '침노'(마 11:12)를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그 땅은 이 지상의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땅이다.
- 요한복음은 모세와 출애굽 사건을 주제로 삼고 있어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모세 모형론, 출애굽 모형론, 신명기 모형론, 유월절 모형론으로 나눈다.

- 바울은 예수님을 제2아담으로 신령한 반석으로 소개하였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21절에서 제2아담 그리스도를 제1아담이 세상에 들 여온 불행들을 바꿔놓은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삶을 위한 종말론 적인 아담으로 설명하였다. 그리스도는 아담 안에서 상실된 것을 궁 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1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물을 낸 반석에, 홍해 건넌을 침례 받음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서신서들을 이해하 는 중요 열쇠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사건, 광야생활, 구름기둥(성령) 에 있다.
-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유대교와 유대공동체와 의 고리를 끊지 못하거나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유대교에로 복귀하 려는 자들에게 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살 길인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지, 왜 그 리스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월한 존재인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교 의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에서 희망하는 그리스도보다 우월한지를 명확히 밝혀주려고 구조주의 모형론을 사용하였다.
-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천사, 모세, 아론계열의 대제사장, 율법, 성막 예배, 불안하게 요동치는 지상 가나안땅과 같은 옛것들은 실체요 새 것인 신약, 예수님, 멜기세덱계열의 큰 대제사장, 복음, 그리스도교에 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 가나안땅의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하 고, 사라질 것들인데,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참과 실체와 새것을 거 절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설파하였다.

- 계시록의 저자도 로마제국의 황제숭배의 강요 속에서 환난과 고통 당하는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인내”(계 13:10; 14:12)를 강조하여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촉구할 목적으로 구약성경을 충실히 해석하였다. 따라서 계시록해석의 관건은 구약성경과 유대교이해에 있다. 계시록의 대부분은 구약성경과 유대교이해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실마리를 풀 수 있고, 극히 일부분만 에녹서와 같은 외경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2)영적 해석

- 하바드대 신학부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홀러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교수한 죠지 E. 라드(미주침례교 목사)가 ‘역사적 천천년설’을 설명한 글에서 주장(Robert G. Clouse, ed., *The Meaning of the Millennium: Four Views*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77), pp. 17-40.)
- 첫째, 신약성경 저자들은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자주 구약성경의 문맥과 다른 의미로 해석하였다. 사례: 마 2:15(호 11:1); 마 8:17, 행 8:30-35(사 53장. 비교: 사 11장).

- 둘째,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자주 문자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구약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문제 삼는 이유이다. 사례: 롬 9:25-26, 4:11-16, 2:28-29(호 1:9-10, 2:23); 히 8장(렘 31:3-34).
- 신약성경 저자들이 구약성경을 구조주의 모형과 영적으로 해석한 것은 율법과 유대교의 병든 상태 때문이었다. 율법과 유대교의 병든 상태 때문에, 복음과 그리스도교의 건강한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병든 상태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구약성경을 해석하듯이, 문자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구약시대에 역사적으로 문자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영적으로 그리스도교에 적용하였다.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회복운동의 당위성

- 사도성은 처음부터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잣대였을 뿐 아니라, 정경과 외경을 구별하는 잣대였다. 따라서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은 이단들과 분열들로 얼룩진 오늘의 교회들에게 바른 신학, 바른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우치는 개혁운동이다. 바울은 교회들에 보낸 서신서들에서 “배운 것”과 “전한 것”이란 말을 여러 차례 썼다. 복음을 누구한테서 배웠는가와 누가 전하였는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1장 11-12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1장 23-25절에서는 주의 만찬의 전례를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것이 복음의 올바른 계보요 전통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주께 받아서 사도들이 전한 것 이외의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당시에는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행한 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이단이라고 불렀다.

-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를 꾀한다면, 제사(봉헌)와 사제(제사장)개념을 도입한 가톨릭 교회, 제칠 안식일 준수를 고집하는 안식교회, 단일신론을 고집하며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여호와증인, 일부다처제를 주장하는 몰몬교, 구약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고집하는 세대주의, ‘예슈아’를 그리스도로 믿으나 세대주의 성경해석법을 따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Messianic Jews), 피 뿌림과 할례를 모방한 약식세례와 유아세례, 반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인 에비온파(Ebionites)와 같은 폐단이 들어난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유대인들에 국한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거나 강조한다. 이런 경우 대개는 공리주의나 실용주의적 유용성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를 꾀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고후 11:4, 갈 1:6-9)을 전하는 자들,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갈 1:7),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빌 3:18), “저주를 받을” 자들이었다(갈 1:8-9).
- 이는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 원칙, 곧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했던 방식대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저주의 대상인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구약성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 말한 것은 구약성경을 신약성경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할 것을 의미한 것이다. 이런 해석방법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해석방법이었고, 신약성경 저자들의 해석방법이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신약성경 저자들의 해석방법과 원칙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예수님을 구약성경에 ‘오실 자’로 예언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님이 이스라엘민족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것처럼 실추된 이스라엘의 주권과 명예회복과 구복지계(口腹之計)를 위해서가 아니라, 열방민족을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미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영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이다.
- 신약성경 저자들은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구조주의 모형론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신약성경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상반된 대립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신약성경은 신념체계이자 하나님의 뜻의 실체인 그리스도교 복음을 독자들인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또 유대교인들의 패러다임(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유대의 정치종교지도자들과 그들의 613개의 계명들의 해석과 장로들의 전통(Gezeirah: 율타리 율법)을 건강한 상태인 그리스도교 복음에 대립되는 병든 상태로 설명한다.

- 신약성경 저자들은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였다. 첫째, 신약성경 저자들은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자주 구약성경의 문맥과 다른 의미로 해석하였다. 둘째,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자주 문자적으로 하지 않았다.
- 환원운동가 토마스 캠벨이 <선언과 제언>에서 밝힌 대로, 신약성경이 신약성경 그리스도교의 예배와 징계와 치리를 정한 완전한 헌법이고, 교회 구성원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한 완전한 규율이다. 알렉산더 캠벨이 '율법에 관한 설교'에서 밝힌 대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 (essential difference)가 있다. P. H. 웰시머가 <신약성경교회에 관한 사실들>에서 지적한 대로, 비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것과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신약성경에 쓰여 있다. 구약은 감춰진 신약이고, 신약은 드러난 구약이다. 우리에게 구약성경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 그리스도교 신학자 프리드리히 바움게르텔이 지적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구약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구약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 총신대학교의 정훈택 교수가 강조한 대로, 그리스도교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은 신약 성경이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포함하고 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구약성경이 탄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의 희망(Ha-Tikvah)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해석하면서, 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인류구원에 유일한 대안인가를 설명한다.
- 이런 신학적 혹은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 또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지난 3세기에 걸쳐 일치와 환원이란 두 가지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치로 대표되는 대화, 화해, 평화와 환원으로 대표되는 근본, 기본, 기준, 표준, 본래성, 순수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교차시켜, 마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속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교차하여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플러스가 되었듯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플러스가 되게 할까를 모든 교회들이 고민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하여왔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회복운동의 당위성은 신학적, 해석학적, 선교적 활동에서 충분히 확보되어왔다.